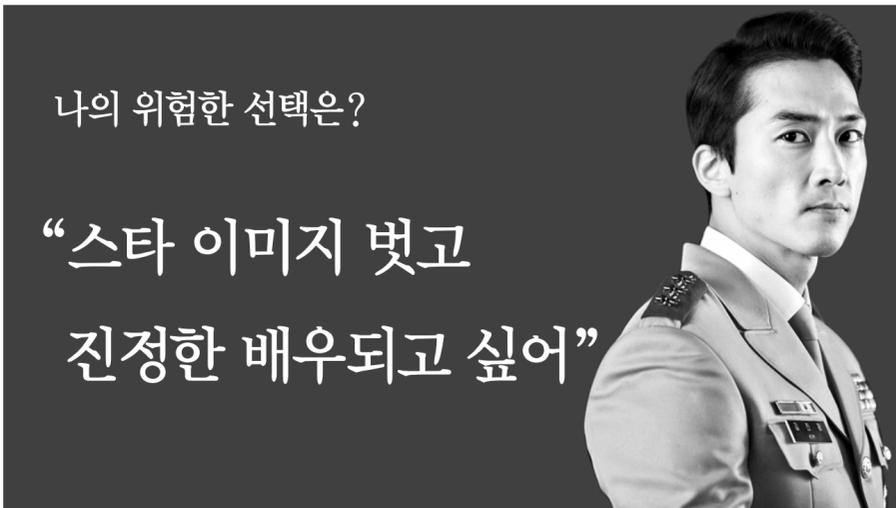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나의 위험한 선택은?
“스타 이미지 벗고 진정한 배우되고 싶어”

송승헌 영화 ‘인간중독’서 배우 임지연과 19禁 연기 도전

“한류스타”이자 대표적 꽃미남 배우 중 한 명인 송승헌도 어 느덧 3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철모르던 시절” 데뷔해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드라마와 영화를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생의 반 이상을” 배우로 살아온 거다. 잘 생긴 외모를 무기로 그는 오랫동안 스타로서 주목받았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그의 인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그 인기의 비결 중 하나는 반듯한 이미지와 좋은 매너,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이 있다.
그런 그가 생애 최초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 이른바 ‘19禁’ 영화에 도전했다. 강한 남성성을 보여주는 누아르도, 한국 영화에서 유행하는 스릴러도 아닌 그저 ‘아해서’ 19禁인 영화다. 그동안 쌓아왔던 ‘반듯한’ 이미지를 단박에 허물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왜 그처럼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을 했느냐는 질문에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스타의 이미지를 벗고 싶었어요.”
영화 ‘인간중독’의 개봉에 맞춰 지난 인터뷰 자리에서 송승헌이 한 얘기다.
“항상 좋은 이미지, 빠르고, 멋지고, 도덕적인 모습. 그 틀 안에서만 움직여도 되죠. 실제로 그랬고요. 남들이 탄성을 내지려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배우가 되고 싶어요. 선배들이 ‘이제 배우가 돼야지’라고 말 해줬는데, 예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 연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했어. 요즘에 와서야 훌륭한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사람들이 제 변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센 캐릭터에도 도전하고, 다양한 시도도 하고 싶어요.”
사실 송승헌이 ‘인간중독’에서 김진혁 역을 맡는다는 소문이 나돌았을 때, 영화계에서는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진혁은 베트남전의 상흔을 가진 유부남으로 유부녀인 화교 중가(임지연)와 격정적인 사랑에 빠지는 인물이고, 그 과정에서 거의 전라가 노출되는 농도 짙은 씬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간 소비된 송승헌이라는 배우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부담이 없었으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불륜을 저지른다는 관계 설정, 노출은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시나리오가 좋았어”
연합뉴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나의 성공비결', 'EBS 특별기획', '정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with their respective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알짜 국어 문법', '2013 논술',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2014 공민중개사 시험대비강좌', '나의 성공비결', '정보보안산업기사시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9일(음 4월 21일 庚寅)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the date May 19th, lis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their corresponding运势 (fortune).

광주 MBC 봄개편 ‘생방송 빛날’ 선보여

월~목요일 오후 6시 20분 방영

광주MBC(대표이사 사장 최영준)가 19일부터 봄 개편과 함께 새 프로그램 ‘생방송 빛날’(기획 박태영, 연출 백재훈·최선영)을 선보인다.
김규리, 정보술 진행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6시20분~7시15분에 방송되는 ‘생방송 빛날’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줄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소개하고, 화제의 인물을 스튜디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빛나는 그대’, 남도의 숨겨진 비경과 여행코스를 소개하는 ‘최고! 남도’,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감동적인 삶을 영상에 담아 기록하는 ‘휴먼 스토리, 느낌표’ 등 매거진 형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특히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고 시청자 참여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백재훈 PD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하루하루가 빛나는 날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제목을 ‘생방송 빛날’로 했다”며 “남도의 빛나는 날, 밝고 희망이 넘치는 내일을 위하여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



김규리, “잘못된 열애설은 ‘집단 구타행위’다”

오승환과 열애설 부인

최근 야구스타 오승환과 열애설에 휩싸인 배우 김규리(35·사진)가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앞서 소속사를 통해 오승환과의 열애설을 부인했다.
김규리는 트위터에서 “연기자의 연기에 대한 평가는 그리도 가혹하면서 ‘카더라’에서 시작되어 ‘아님 말구’식의 기사는 이전 당연시 여기는 세상인가 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열애설은 연예인에 대한 ‘집단 구타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리는 “제가 배우인 것만 빼면 어두운 골목길에서 몰래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한 여성을 집단 구타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그대는 자랑스러운가요?”라며 “그렇다면 당신께서 제 몸에 낸 상처는 기꺼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제 직업을 떠나고 싶어요”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의봉사활동으로 인해 예방접종 두개나 맞고 말라리아약도 복용 중이라 몸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새벽부터 제가 주인공인 소식을 읽었다니 속까지 종일 울렁입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인터넷매체는 지난 16일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과 김규리가 3개월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